

소규모 인디 공연 정보 플랫폼 '모디'



2025-2학년도 캡스톤디자인 발표회

팀 명 김삼문

팀 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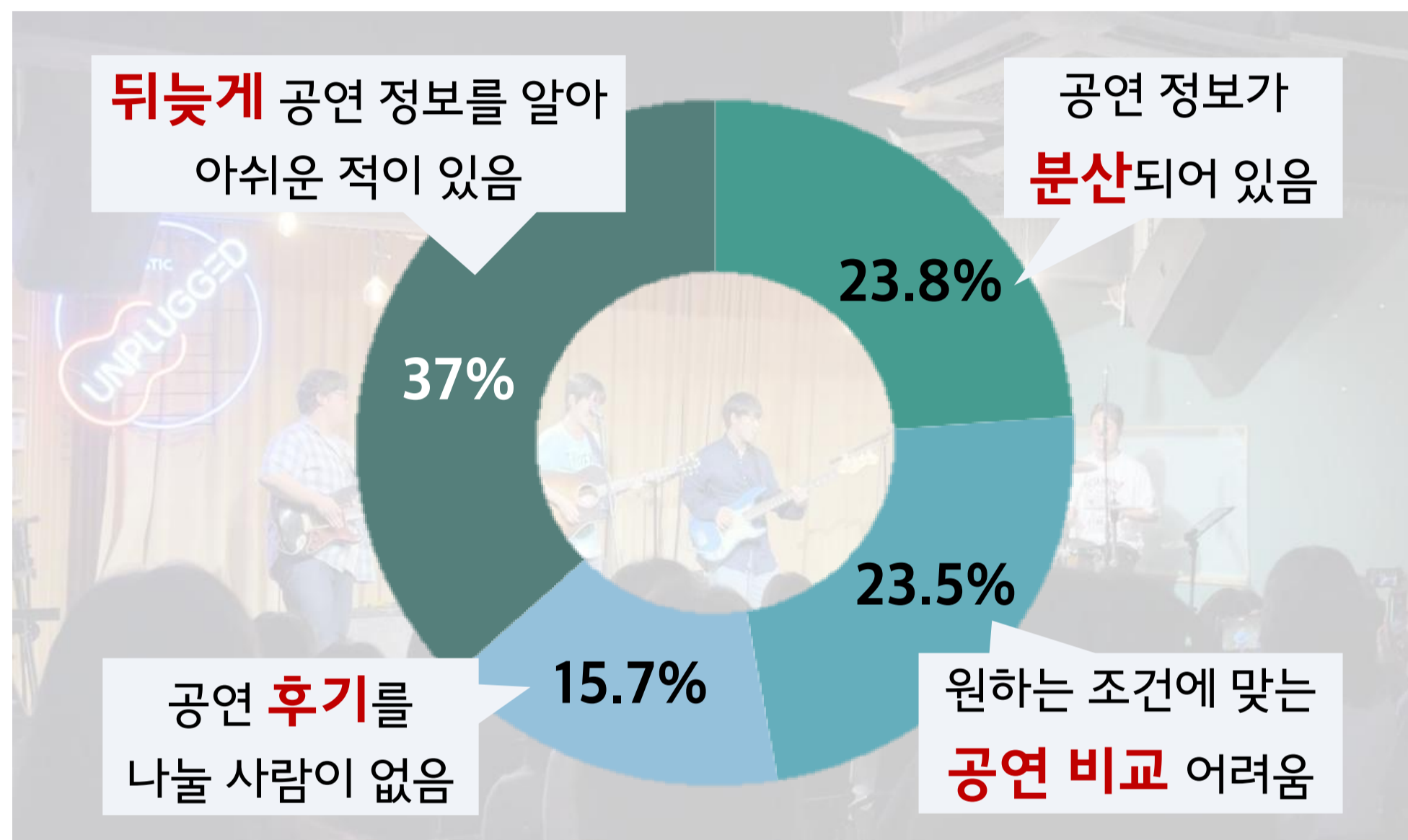
김가희: 프론트엔드 - 모디 덕에 공연장 매니저 되기 직전이다. 김예빈: UX/UI - 더 많은 인디 팬들에게 닿길 바란다.
 김현진: 백엔드 - 인디분이 정말 올 것 같다. 문수빈: 백엔드 - 모디 만들다 최애 공연장이 생겼다.
 전수아: 프론트엔드 - 모두의 인디, 그래서 모디.

연구 요약

전국의 소규모 인디 공연 정보를 **한곳에서 확인**할 수 있는 플랫폼

- 공연 일정 캘린더, 실시간 주변 공연 찾기
→ 편리하게 탐색 가능
- 리뷰, 매거진
→ 공연 경험 공유 및 인디 공연의 접근성 향상

문제정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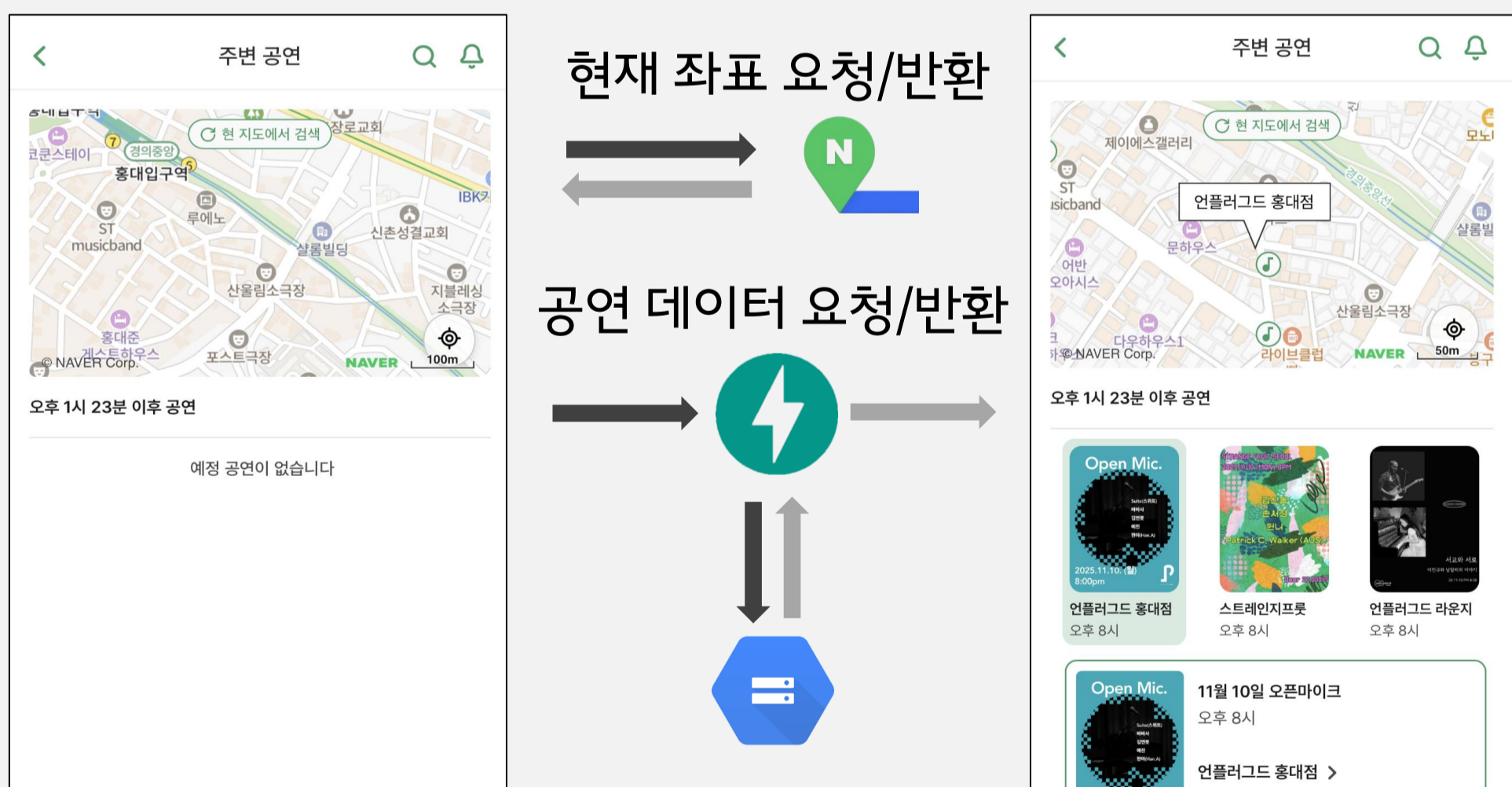


소규모 인디 공연 탐색 서비스 설문조사(25. 04. 17.~30.), 응답자 270명 중 '공연 탐색에 불편한 점 있다'고 응한 답변 비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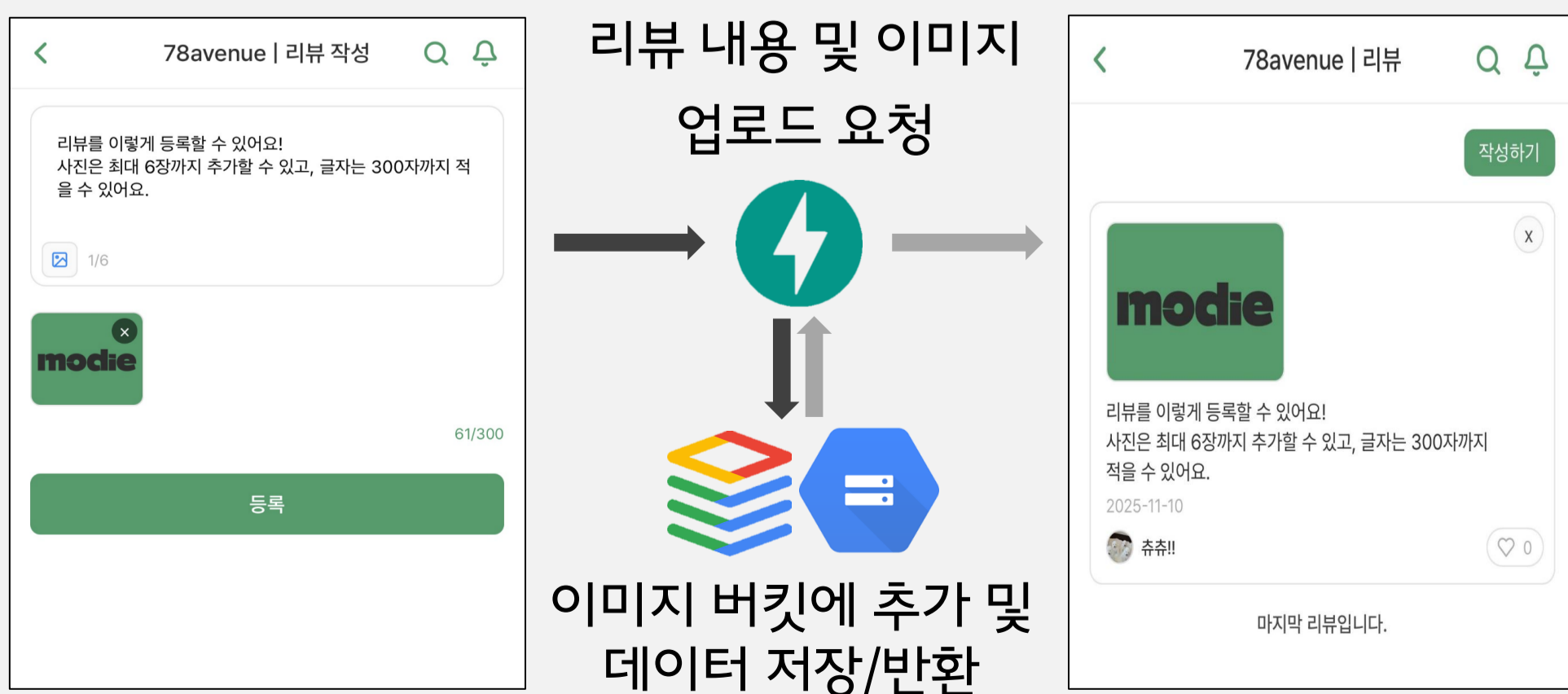
아키텍처



위치 기반 공연 조회: **버튼 클릭 시**



공연 리뷰 작성: **등록 버튼 클릭 시**



주요 서비스



공연장 리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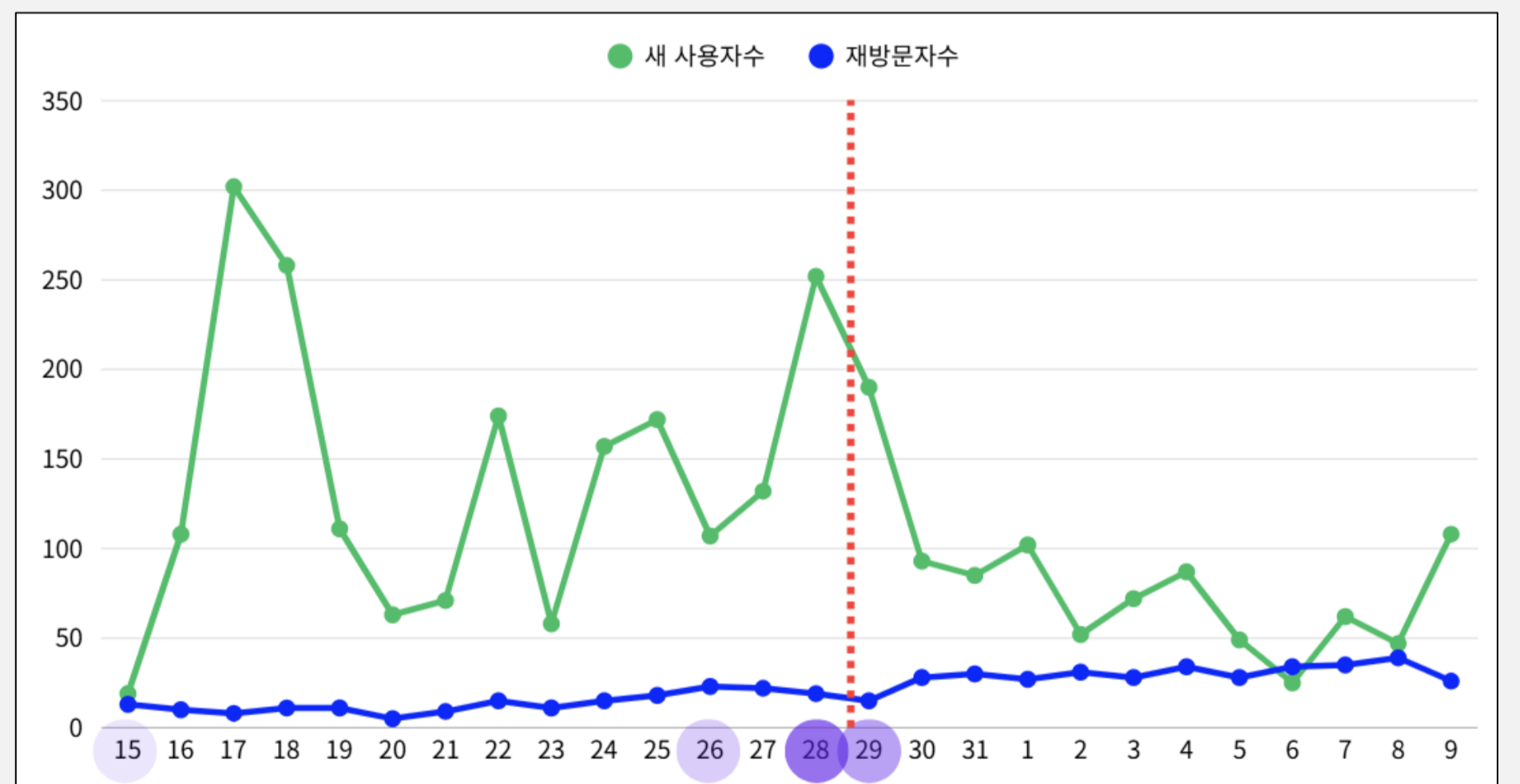
- 실관람객의 후기로 **신뢰 높은 정보 형성**
- 첫 방문 사용자에게 공간 **선택의 기준 제공**
- 공연 경험이 축적된 **아카이브 마련**

공연 및 노래 큐레이션

- **스토리텔링**을 통한 공연 추천
- **감정적 공감대**를 형성해 인디 음악의 매력 전달
- 취향에 맞는 공연, 음악 발견을 통해 **실제 관람으로 연결**



홍보 및 성과



- 10/15: 공연장 방문 및 SNS 운영 개시
→ 새 사용자 급증, 첫 유입 기반 형성
- 10/26: 인디 공연 팬 대상 현장 홍보 진행
→ 직접적인 서비스 소개를 통한 **인지도 확산**
- 10/28: SNS 이벤트 실시
→ 새 사용자 **급증**
- 10/29: 노래 매거진 발행 시작
→ **재방문자** 완만한 증가
- 정기 매거진 발행(공연, 노래)
→ **재방문자 유지 강화**



사이트 접속 modiemodie.com

